

## 개화기의 언론 수용자운동

채백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

이 논문은 개화기의 언론 수용자운동을 분석하였다. 최근 언론 수용자운동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기원을 1960년대의 언론윤리위원회 파동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한국 언론사에서 우리가 수용자운동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개화기의 두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박문국 방화사건과 《황성신문》 및 《제국신문》 살리기 운동이 그것이다. 이 사례들은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수용자들의 의견이 집단적으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개화기의 언론에서도 수용자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수용자운동의 역사적 뿌리가 그만큼 깊고 오래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언론 수용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키워드 : 언론수용자운동, 개화기, 황성신문, 제국신문, 박문국방화사건

---

### 1. 문제의 제기

언론 수용자운동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언론수용자운동이 활성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으로 가능했던 민주화의 바람 속에서 몇몇 시민단체들에 의해 언론 모니터, 시민들에 대한 언론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 언론 수용자운동은 지난 1998년에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연대 기구를 구

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해 8월 서울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출범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 11월에는 부산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기구가 출범하였다. 언론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혁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언론을 바로 잡겠다고 깃발을 올린 것이다. 이러한 언론 수용자운동은 2001년의 언론개혁 논쟁에서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학계에서도 최근 한국 언론의 현실을 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개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언론 수용자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최장집(1996, 385쪽)은 언론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언론인에 의한 자정과 언론 수용자운동의 두가지를 제시하면서 후자에 더 큰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양승목(1995, 131쪽)도 언론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러한 입장을 집대성하여 1999년에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언론개혁의 주요 주체이자 방법으로 언론 수용자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각 언론사에 노조가 설립되고 언론노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언론인들 스스로에 의한 개혁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 언론노조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는 못하자 언론개혁의 열쇠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개혁을 이끌어 간다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언론 개입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론개혁의 방법으로 언론 수용자운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언론 수용자운동의 현재나 미래가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언론 수용자운동단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부족과 재정난,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산적한 어려움이 언론 수용자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민단체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더니 급기야는 2001년의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에서 홍위병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다(이문열, 2001).

학계도 이처럼 언론 수용자운동에 적지 않은 기대를 하면서도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지 못하였다. 특히 해방 이전, 즉 개화기와 일제기의 언론 수용자운동은 거의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언론 수용자운동을 논한 연구들에서는 그 역사적 기원을 대부분 1960년대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으로 잡고 있다(예컨대 김기태, 1989; 임영호, 1995; 양승목, 1995 등). 다시 말해 개화기와 일제 시기가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다. 언론운동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 언론운동은 초창기인 개화기에 언론인 운동에서 시작되어(손석춘, 1999, 54쪽) 이후 수용자 운동으로까지 확대(최민희, 1999, 153쪽)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를 한국 언론의 초창기인 개화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평가해 보려고 한다. 당시 제한된 여건에서 언론의 수용자층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지만 개화기 언론의 역사에서도 수용자들이 언론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언론 수용자운동의 범주로 포괄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김기태(1994, 134)는 언론 수용자 운동을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중매체가 인간에게 미치는 각종 영향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한

후 이를 능동적으로 선택, 수용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대중매체의 구조와 내용을 수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 집단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언론 수용자 운동의 특징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바탕이 된다는 점과 언론의 구조나 내용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 세가지 특징으로 우리는 언론 수용자 운동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언론 수용자운동을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이 개념들을 따라 개화기의 언론 수용자운동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의 그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들이 언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사례들을 분석,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재확인해봄으로써 그 흐름 속에서 언론 수용자운동의 위상과 전망을 가늠하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의 방향을 잡기 위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박문국 방화 사건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의 발행처였던 박문국이 1884년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군중들에 의해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갑신정변의 마지막날인 1884년 12월 6일에 박문국이 소실됨으로써 한성순보가 폐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군중들에 의해 신문사가 방화된 이 사건의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1) 시대적 배경

### (1) 근대신문의 형성

1883년 10월 1일 박문국에서 《한성순보》가 창간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신문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었다. 개항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안으로는 봉건지배체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고 밖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국권 수호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처는 크게 세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배 엘리트층에서는 위정척사와 개화의 상반되는 두 개의 사상적 대응이 형성되었으며 민중부문에서는 동학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영호, 1984, 124-125쪽).

이중 근대신문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개화사상이다. 서구의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적 개혁을 이룸으로써 내외의 이중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 바로 개화사상이다. 이 개화파들이 바로 근대신문 형성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은 국민계몽을 통해 개화사상의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는 바로 이 개화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개항 이후에도 개화파들은 청의 영향력을 등에 업은 보수파에 대해 정치적 열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일본과의 연합을 통해 친청보수세력에 대항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당시 개화파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개화를 도와 줄 우호적인 세력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개화파와 일본이 만나게 된 구체적 계기는 1882년 박영효를 수반으로 하는 2차 수신사의 일본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박영효는 귀국하면서 일본의 개화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추천한 신문 편집 및

인쇄 기술자를 대동하였다. 이것이 《한성순보》 창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한성 판윤에 임명된 박영효는 1883년 초 고종의 윤허를 받아 한성부 신문국에서 근대 신문 창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애초에 신문 창간 작업은 유길준이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 주도하였다.

창간 준비가 무르익어갈 즈음 박영효가 보수 세력에 밀려 한성판윤에서 광주유수로 좌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유길준도 사임하고 일본인들도 귀국함으로써 창간 주체가 김윤식 등의 온건 개화파로 넘어 가게 되었다. 그러나 온건 개화파도 신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 준비 작업을 그대로 이어서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1883년 10월 1일 《한성순보》가 창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화파의 주도에 의해 《한성순보》가 창간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후기부터의 사회 변화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근대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능케 했던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은 크게 나누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채백, 1990, 26-31쪽).

먼저 경제적 측면의 배경으로는 조선 후기부터 상업과 화폐경제가 발달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원시 이래로 상업의 발달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추동 요인이 되어 왔다. 상업의 발전은 그만큼 인간의 상호작용의 영역과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며 또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 후기부터 이루어진 상업과 화폐 경제의 발달은 새로운 매체가 태동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적 측면의 배경 요인으로는 개항기 한국사회가 급격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으로는 봉건체제의 붕괴 위기,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양선과 이방인이

출몰하는 등의 문화적 충격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커다란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회 불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정보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로만 이 증대된 정보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매체가 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한글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문자문화의 저변이 꾸준히 확대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한글문헌의 보급이 꾸준히 확대되며 가사와 소설문학의 발전으로 한글 사용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자문화의 저변 확대는 신문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

순한문의 순간 체제로 발행된 《한성순보》는 제한된 여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쇄라는 당시로서는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뉴스를 널리 공개함으로써 매스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그 독자층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용 언어 면에서 순한문을 쓰다 보니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문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성순보》는 주로 지방 관청을 중심으로 배포되어(정진석, 1990, 90쪽) 지방의 관리들과 소수의 지식인들이 주된 독자층이었다. 이렇듯 제한된 계층이지만 《한성순보》의 창간과 함께 신문의 독자라는 새로운 집단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의의는 간과할 수 없다. 언론의 수용자라는 새로운 집단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 (2) 한성순보에 대한 일본의 영향

《한성순보》는 최초의 창간 논의과정이나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발행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일본의 영향이 작용하였다. 전술한 대로

창간의 계기는 1882년 수신사로 일본에 간 박영효와 일본의 후쿠자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박영효는 후쿠자와에게 조선의 개화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방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후쿠자와는 젊은 청년들을 선진 외국에 유학 보낼 것과 신문을 발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면서 후쿠자와는 조선에서의 신문 발행을 도와 줄 신문 기자와 인쇄공을 함께 데려 가도록 추천하였다.

이때 후쿠자와가 조선의 개화를 위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국익을 위한 행동이었다. 당시 일본도 조선과 마찬가지로 내외적인 위기 상황이었다. 안으로는 봉건체제의 위기로, 밖으로는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국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인 청과 조선도 근대적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후쿠자와는 생각하였다(채백, 1990, 60-70쪽).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의 신문 발행을 적극 원조하였던 것이다.

애초의 창간 준비 과정에는 유길준이 주도하는 가운데 박영효와 함께 건너 온 후쿠자와의 제자였던 우시바(牛場卓造)와 다카하시(高橋正信)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급진 개화파들이 민비세력의 견제에 의해 박영효가 한성판윤에서 밀려나 광주유수로 좌천되면서 신문 창간 준비는 벽에 부딪혔다. 유길준도 그만 두고 후쿠자와의 제자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귀국해 버렸다. 그러나 김윤식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 개화파도 신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신문 창간 작업이 다시 재개되었다. 이때부터는 박영효와 함께 들어왔던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오로(井上角五郎)가 온건개화파의 거두인 김윤식의 신임을 바탕으로 참여하였다(채백, 1990, 74쪽). 이러한 점 때문에 《한성순보》는 직접, 간접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성순보》가 창간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노우에는 당시 조선 사회의 신문에 대한 반발을 “한성순보가 조선 사회에 나타나



자 조선인 중에도 반대가 있었으며 특히 중국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서교(西敎) 전파를 위한 것이라느니 일본의 선양(宣揚)을 위한 것이라느니 가지각색의 말들이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다(井上角五郎, 1934/1984, 302-303쪽). 친청보수세력들을 중심으로 근대신문이 전통적 관습에서 벗어나 서양과 일본에 우호적이라고 비판하였다는 것이다. 《한성순보》가 개화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직접, 간접으로 일본인이 참여하였으며 서양의 근대 문물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이 친청보수세력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발행되던 《한성순보》는 오래 발행되지 못하고 창간 1년여 만에 폐간되어야 했다. 그 이유는 이 신문의 발행처였던 박문국이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한성순보》의 창간을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 작업을 주도했던 박영효와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 세력이 도모했던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와중에 박문국도 군중들에 의해 불타버렸던 것이다.

## 2) 박문국 방화사건의 과정

《한성순보》를 발행하던 당시 박문국의 위치는 한성 내 저동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곳에는 신문 발행에 관여했던 일본인 이노우에가 기거하고 있었다(古庄豊, 1918, 19-20쪽). 이 박문국이 정변의 마지막 날인 12월 6일 군중들에 의해 불타버렸다. 갑신정변에 일본 공사관이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청의 개입으로 전세가 기울어가는 정변 3일째부터는 한성 시내 곳곳에서 일본인이나 그들의 거처가 백성들로부터 공격당했다. 이노우에는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井上角五郎, 1891/1990, 311쪽).

일본 군인과 공사관원 약간명, 그리고 40여명의 거류 일본인이 청국 군인과 조선인 폭도에 의하여 죽거나 다쳤다. 이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7일 서울 안의 여기저기에서 폭도들이 봉기하여 일본인은 한 발자국도 공사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지난 밤에도 왕궁 쪽에서는 끊임없이 총성이 들려 왔다. 아침에는 어젯밤에 비교해서 조금 잠잠해졌다. 나의 집도 어젯밤 폭도들에 의해서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밑줄 강조는 인용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노우에가 자신의 집이라고 말한 곳이 바로 박문국이다. 박문국이 바로 1884년 12월 6일에 군중들에 의해 방화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박문국이 불타버린 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반일감정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정진석(1985, 32쪽)도 당시 군중들이 박문국을 불태워 버린 것은 《한성순보》가 일본측과 긴밀한 유대 아래 발간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이처럼 반일감정이 고조되었던 사회 분위기를 《매천야록(梅泉野錄)》(卷1 上, 92쪽)은 “시민들은 개화당<sup>1)</sup>의 정변모의에 대해서 노하였다.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였으며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다”고 전하고 있다. 갑신정변 주역의 한사람으로 참여했던 서재필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정변의 과정을 서술하면서 이때에 거리로 나온 민중들 사이에서 “왜놈 죽여라, 역적 놈 잡아라”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고 회고하고 있다(김도태, 1972, 168쪽).<sup>2)</sup> 이와 같이 반일감정이 고조된 속에서 군중들이 일본인과 그 거주 시설에 대해 공격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박문국에도 방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1) 원문에는 倭黨으로 되어 있다.

2) 이러한 상황은 당시 내각의 외국인 고문으로 있던 독일인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회고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당시의 정황을 “민중들은 격앙되어 길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모조리 살해했다”고 기록하였다(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1985, 52쪽).

### 3) 박문국 방화사건의 의의

그렇다면 이러한 반일의 분위기 속에서 왜 박문국이 방화의 대상이 되었는지가 문제로 떠오른다. 이를 명확하게 밝혀줄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는 창간 논의나 준비, 그리고 실제 발행 과정에서 직접, 간접으로 일본이 개입하였기에 일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박문국이 군중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한성순보》의 발행 과정에 이노우에가 참여하였으며 그밖에도 창간 초기의 연호 표기에서 중국 연호를 구석에 표기한 점이나 내용 면에서 중화사상에 어긋나는 지구론과 같은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일본의 영향하에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성순보》 제10호(1884. 1. 30.)에 실린 ‘화병범죄(華兵犯罪)’ 제하의 기사는 청의 직접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켜 청이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까지 했다(채백, 1990, 76-80쪽). 《한성순보》의 창간 초기에 당시 사회에서는 이 신문이 일본에 아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되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한다(古庄豊, 1918, 20쪽). 그 외에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박문국에는 일본인 이노우에가 기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군중들의 공격대상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사회가 박문국을 일본과 연관시키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매천야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매천야록》 1권의 갑오 이전 항(119쪽)을 보면 박문국이 “설치한 지 수년이 지났으나 실용적인 일을 한 것이 없고 한갓 국고만 허비하여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덧붙이고 있다.

을사(광무 9년) 이후 이또 히로부미(伊藤博文)이 통감의 자리에 앉아 정국을 휘어잡으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박문국(博文局)은 그렇게 될 조짐이라 하였다.

이는 박문국의 ‘박문’이 초대 통감 이또 히로부미의 이름과 한자가 일치하는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다시 말해 박문국이 생긴 것이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 가게 될 조짐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박문국의 성격에 대해 일본과 밀착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한성순보》에 일본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당시 사회의 비판적 인식이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박문국 방화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 독자층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반인<sup>3)</sup>들의 신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집단적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 역사에서 최초의 수용자 운동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3.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살리기 운동

개화기의 신문들은 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여건이 성숙

---

3) 여기서 당시 박문국 방화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한성순보》의 독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이들 중 《한성순보》의 독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이 사건을 수용자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수용자운동에서 수용자가 반드시 해당 매체의 직접적 접촉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1990년도에 전개된 스포츠신문 구독 거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반드시 스포츠신문의 구독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박문국 방화 사건을 수용자운동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구독자층도 한정되어 보급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광고로 재원을 조달할 만큼 산업 발전도 안되었던 탓에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재정난 때문에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계속 발간이 어려워 정간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자 독자들을 중심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신문 돕기에 발벗고 나선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시대적 배경

### (1) 근대신문의 정착과 발전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근대신문은 그 종수도 많아지고 발행주체도 다양화되면서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여러 민간신문들의 창간을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98년 들어서면서 《매일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등 여러 신문들이 창간되었다. 이중 가장 먼저 창간된 것은 《매일신문》이다. 배재학당의 학생회인 협성회가 1898년 1월 1일부터 주간으로 발간하던 《협성회회보》가 그해 4월 9일부터 제호를 《매일신문》으로 바꾸어 일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신문은 한국 최초의 일간 신문이다. 발행주체가 배재학당의 학생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신문은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 주었다.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10일에 창간되었다. 이종일 등이 중심이 된 이 신문은 중류 이하의 일반 대중과 부녀자를 주된 대상으로 순한글로 발행하였다. 이어서 1898년 9월 5일에는 《황성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그해 3월 2일부터 발행되던 《경성신문》이 4월 6일 《대한황성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었다가 다시 이것이 합자회사 형태로 《황성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것이다. 《황성신문》은 개신유학층을 대상으로 하여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였다.

신문의 종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발행 주체세력도 개화세력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종교세력 등까지 가세하여 다양화되었다. 보수세력들이 창간한 신문으로는 《시사총보》와 《상무총보》가 있다. 독립협회와 대립하던 황국협회도 신문의 필요성을 깨닫고는 1899년 1월 24일 국한문의 격일간으로 창간한 신문이 《시사총보》이다. 1899년 4월 14일에는 보부상 모임인 상무사에서 《상무총보》를 창간하였다. 이 신문들은 독립협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민족운동 계열의 신문들이 활기를 띠게 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발행했던 신문들이다.

한편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신문들도 창간되었다. 1897년 2월 2일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가 《조선그리스도인회보》를 순국문의 주간으로 창간하였으며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는 1897년 4월 1일 역시 순국문의 주간신문인 《그리스도신문》을 창간하였다. 이밖에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외무성 기관지 《한성신보》도 1895년 1월에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창간된 신문이었다.

이때에 이처럼 신문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외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즉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 커다란 정치적 사건들이 줄을 이었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침탈도 본격화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립협회 운동도 활발해지면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급속하게 상승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우편제도와 통신제도가 도입되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는 등 신문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다(채백, 1990, 126-171쪽).

그리하여 이 시기부터 다양한 세력들이 신문 발행에 참여하여 신문의 종류도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서 신문은 사회의 영향력있는 매체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신문들은 이전의 신문들과 달리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을 보여 주었다. 초창기 《한성순보》나 《한성주보》, 그리고 《독립신문》까지는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에서는 한계를 보여 주었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근대화의 모델로서,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를 도와 줄 우방으로 인식하였다(김민환, 1988).

그러나 1898년 창간된 《매일신문》 이후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면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여론의 힘으로 침략에 맞서려는 이념적 지향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제국신문》은 1902년 9월 12일자 논설을 통해 “약한 나라이 권리 찾는 힘은 군스에 있지안코 민론에 있는지라”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 신문들은 이러한 이념적 지향에 바탕하여 당시 가속화되던 열강의 이권 침탈을 지면을 통해 폭로하는 논조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신문들이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이를 신문 논조에도 반영함으로써 신문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은 초기의 거부 반응에서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어 갔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돕기 운동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 (2) 신문 독자층의 확대

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층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어느 사회에서나 초창기의 신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배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엘런 리(Lee, 1976, p. 35)는 초창기 신문이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네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문자해독능력이다. 신문의 초창기라 할 근대 초기에는 어느 나라나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대부분은 문자해독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둘째는 경제력이다. 초창기 신문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독료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로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신문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셋째는 여가이다. 산업화 초기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시간적 여유도 잘 없었다. 넷째는 배달의 어려움이다. 교통 수단이 발달이 미약했고 도로망의 정비도 잘 안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신문 보급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대신문의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간접적 구독방식들이 형성되었다. 서구의 경우는 공원 등지에서 돈받고 신문을 읽어 주던 누벨리스트들이 생겨났으며 커피하우스나 살롱 등도 신문을 구비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Smith, 1979/1990).

한국 근대신문에서도 문자해독능력이 있는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신문을 대신 읽어 주는 방식이나 한 부의 신문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 읽는 방식, 특정한 공간에 그 지역 유지나 뜻 있는 사람들이 자비로 신문과 잡지를 구비하여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읽을 수 있도록 한 신문잡지종람소를 통한 구독, 구독료 대납이나 공동 부담을 통한 구독, 공공기관의 구독 등의 여러 형태의 간접적 구독 방식들이 출현하였다(채백, 1998). 이처럼 근대신문 초창기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신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로써 신문들의 발행부수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구독층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화기 신문들은 공통적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당시의 신문들이 대부분 신문을 발행하여 기업으로서 수지를 맞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이렇듯 신문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계속 발간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자 독자들이 나서서 신문돕기운동을 펼친 사례들이 있다.

## 2)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살리기 운동의 전개 과정

### (1) 《황성신문》살리기 운동

《황성신문》은 1903년 연초에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정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지면을 통해 알려지자 뜻있는 독자들의 의연금을 보내 신문이 계속 발행될 수 있도록 했던 사례가 있다.

1903년 2월 5일자 《황성신문》은 신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고를 게재하였다. 이 사고에서 《황성신문》은 먼저 경영의 현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발행 부수가 3,000여부로서 매달 구독료와 광고료 수입이 1,050여원, 경비는 830원으로서 매달 220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구독료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자와 경영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당시 전국에 걸친 구독료 미수금 총액은 7,000여 원으로서 이것만 징수가 되면 종이나 잉크 대금, 우편료 등 부채 2,000원을 청산하고도 남는 액수이다. 이러한 재정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국의 독자들에게 구독료를 속히 납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같은 날짜 논설에서는 ‘大呼擲筆’이라는 제목으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신문이 계속 발간하기 어려워 부득이 정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고 있다.

百計가 沒策하야 從此로 續刊함을 不得하니 嗚呼라 本社는 永永 盲聾客이 되얏도다. 雖然이나 本記者는 本社에 盲聾客됨을 悲感함이 아니라

尙히 全國의 盲聾客됨을 憤恨호야 大聲一呼호고 秃筆을 擲地호노라.

신문의 속간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전국이 장님, 귀머거리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분히 여기며 무딘 펜을 던진다는 비장한 내용의 글이다. 이 글이 나가자마자 바로 독자들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신문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격려의 편지와 후원금이 전국에서 답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마도 이렇듯 비장한 논조의 글이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다. 2월 5일자를 발행한 후 4일 정도를 쉬다가 발행한 9일자를 보면 각지에서 정간을 비통해 한다는 내용의 독자투고와 의견금이 들어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 날치 신문에 실린 것 만도 투고를 통해 신문이 정간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조그만 보탬이라도 하려고 돈을 보냈으며 壽松逸人이 100원, 白倉山人이 20원을 보냈다.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 《황성신문》(1903. 2. 9.)은 장문의 사고를 실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주된 내용은 당초 신문을 정간하려 하였으나 독자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부채만 갚는다가나 돌려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다시 신문을 발간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신문이 계속 발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측면에서 방책이 있어야 하니 이에 좋은 방안을 알려 달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성금 답지는 4월 중순경까지 이어졌다. 거의 매일 전국의 독자들에게서 온 편지가 지면에 소개되었다. 대부분이 소액이나마 신문의 재정을 위한다며 후원금을 함께 보냈다. 그중 한 사례만 예로 들어 보면 《황성신문》 1903년 2월 27일자에 수원에 사는 나성규라는 사람이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가 실렸다.

生은 鄉邑에 居生호난 一個 蠶愚之人으로 耕田食鑿井飲호난 餘暇에 貴社 新聞을 購覽愛讀호은지 多年에 不知中 曉悟호비 不少호야 見聞에 熱習호면 裨益이 甚大호기를 深望호엇더니 向日擲筆論題에 停刊호단난 句

語에 至<sup>호</sup>야난 茫然失圖<sup>호</sup>다가 …(중략)… 及見連日續刊之報<sup>호</sup>오니 切爲 寄書諸君子<sup>호</sup>야 不勝百倍感謝也로다 聊表欣感之情<sup>호</sup>야 僅以銅貨十元을 仰呈于文几之下<sup>호</sup>오니…(후략).

평범한 농민이 틈틈이 신문을 읽으면서 깨우치는 바 적지 않던 차에 신문이 정간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망연자실하였으나 다시 속간한다고 답기 이를 데 없어 10원을 보낸다는 이야기이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줄을 이으면서 액수는 다양하지만 성의껏 후원금을 함께 보냈던 것이다. 이광린(1986, 19-22쪽)의 분석에 의하면 당시 신문에 게재된 기서는 총 65통에 의연금 액수는 2,032원 20전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황성신문》이 출발한 당시에 모집된 자본금 액수에 맞먹을 만큼 상당한 액수의 돈이다.

당초 《황성신문》은 주식회사 형태로 1주당 10원씩 총 500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000원을 목표로하였으나 당초의 자본금 모집 계획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1900년 9월에 열린 총회의 기록인 《황성신문사총회회록》을 보면 1900년 8월까지 2,631원이 납입되었으며, 나머지 2,369원은 미납된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에 모금된 2,000원이 넘는 액수의 돈은 상당한 금액으로서 《황성신문》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sup>4)</sup>

4) 이때에 고종황제도 《황성신문》에 보조금 500량을 하사하였으며 내부로 하여금 각도에 훈령을 내려 각도의 적체된 신문 구독료를 납부케 하였다. 이때의 훈령으로 일시적으로 몇몇 도에서는 반응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그 뒤로도 몇차례 같은 내용의 훈령이 반복되었다. 즉 그해 7월 18일과 8월 18일에 다시금 훈령이 내려졌었다(《황성신문》, 1903. 8. 22. 별보).

## (2) 《제국신문》 살리기 운동

《제국신문》의 사례도 《황성신문》과 비슷했다. 1907년 9월 들어 《제국신문》은 지면을 통해 신문사 운영의 어려움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다. 9월 5, 6, 7일 3일에 걸쳐 ‘엇지 할 슈 업는 일’이라는 제목의 논설과 10일자 ‘붓을 들고 통곡함’이라는 논설이 그것이다. 이 논설들이 나간 후 의연금이 들어 왔으나 경영난을 해결하기에는 태부족이어서 결국 9월 20일자로 ‘붓을 던져 신문 사랑호는 여러 동포에게 작별을 고희’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이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본사에 치장이 천여원이라 하나 붓을 것이 또 그 수효가 넉넉한 지라 무삼 근심할 비리오만은 금년 봄만 갖허도 사회의 유지호신 이들이며 우리 신문 사랑호시는 동포들이 그 군출함을 본사 사원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은 명한 일이라니 그동안 조금 남았던 국력이 아주 끈어져서 본국인민의 희망점이 쓰어지고 ...또한 그 썬이 안이라 신문조례를 반포호는 지 두달이라 본월 이십스일 너로는 보증금 삼백원을 내부에 맞치지 안이호면 또한 신문을 발행호지 못호는 경우인즉 본사의 지목비도 균간한 중 더구나 습칙원 공익을 어더서 판출호리오.

여기서 말하는 신문조례란 1907년 7월 24일 반포된 신문지법을 말한다. 당시 《제국신문》이 정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구독료 미수금이 많아서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점 외에도 이 신문지법에 의해 새로 규정된 발행 보증금 300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는 점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증금 3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납부 기일 며칠을 앞두고 정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제국신문》이 정간에 들어가자 독자들이 나섰다. 9월 21일부터 신문이 발행되지 않자 《제국신문》의 속간을 위한 각계의 의연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창신사의 사원들이 뜻을 모아 62환을 기부한 것을 필두로(《황성신문》 1907. 9. 22. ‘果然彰信’) 여자교육회

사무장을 맡고 있는 장옥자씨가 회원들에게 절절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 《제국신문》에 의연금을 내줄 것을 간청하였다(《황성신문》 1907. 9. 24., ‘女中君子’). 《황성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여성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남성들은 가만히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나가자 바로 뒤이어 남성들 단체에서도 의연금 모금에 발벗고 나섰다(《황성신문》 1907. 9. 26. ‘各社會熱心’).

《제국신문》을 위한 의연금 모금운동에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들까지 참여하였다. 미주 지역에서 발행되던 《공립신보》는 1907년 10월 18일자)에 정재관 외 10명의 발기인 명의로 된 ‘데국신문을 위하여 연조금을 모집하는 취지서’를 지면에 게재하였다. 이들은 취지서를 통하여 “데국신문이 투필당간하는 비경을 당한 것은 아직껏 우리 동포가 신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여 사랑하느 마음이 부족한 연고”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연금 모금을 천명하였다.

데국신문을 위하여 의연금 모집하기를 발기하고 의연금 모집소는 공립신보사로 당하였스오니 유지하신 첨군자는 등정을 표하시고 뜻글을 모아 티산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시와 다쇼를 불구하고 각각 출의연조하시되 스기가 급박하오니 연조금을 이달 30일 너로 보너지기를 절절간망 하옵너다.

이처럼 각계 각층 독자들이 발벗고 나서 의연금을 모금한 데 힘입어 다시 10월 3일자로 속간할 수 있었다. 속간호에서 《제국신문》은 ‘본신문 속간하난 일’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신문사에 의연금을 보내준 이들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계속 구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국신문》이 정간을 극복하고 속간하는 데에 독자들의 의연금 모금이 중

5) 그러나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이때에는 이미 《제국신문》은 속간된 상태였다. 《공립신보》는 미주에서 발행되는 관계로 정보가 늦어서 뒤늦게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살리기 운동의 의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의 두 사례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연금을 모금함으로써 신문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 문단을 위기에 처했던 신문을 살려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는 조직적인 형태는 아니었을지라도 각계 각층의 많은 독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행위의 대상이 신문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어려운 지경에 처한 신문을 도우려 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첫째로는 독자들이 신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에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신문을 살리려는 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로는 당시 신문들의 역할에 대해서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에 신문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독자들의 자발적인 의연금 모금 운동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평가가 이처럼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신문》 이후 창간된 여러 신문들을 경험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들 신문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을 개명 진보로 이끌기 위해 진력하였으며 특히 이전 신문들과 달리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았기에 이처럼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했으리라는 말이다.

#### 4. 개화기 언론 수용자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한국 신문의 초창기인 개화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발전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독자층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여러 종류의 신문이 발행되기는 했지만 그 독자층은 일부에 한 정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의 신문은 어느 사회에서나 제반 여건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독자층이 제한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독자층의 형성이 제한된 여건 속에서 수용자운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토양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개화기 한국사회에서는 이처럼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들이 신문에 대하여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 표현을 하는 수용자운동의 맹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개화기 언론 수용자운동의 역사적 특성을 그 이념과 주체, 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봄으로써 그 의의를 새겨 보고자 한다.

개화기의 수용자운동은 갑신정변의 와중에서 빚어진 박문국 방화사건과 이후의 신문 돕기 모금 운동이 그 지향하는 이념의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다. 박문국 방화사건은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정치적 쿠데타라는 사건의 와중에서 신문사 시설에 대한 방화라는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신문과 독자는 매우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할 수 있겠다.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신문은 독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대립적인 관계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가 일본과 밀착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이후의 신문돕기 모금운동에서는 신문과 독자의 관계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연대의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신문의 어려움을 독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시도는

이 연대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연대의식이 가능했던 배경은 개화기 언론들이 영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민계몽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문을 발행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신문의 발행 목적들이 일반 민중들에게도 호소력을 발휘함으로써 독자들은 신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 연대의식이 신문을 돕는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 분석할 수 있겠다.

개화기 언론 수용자운동의 주체는 조직화되지 못하고 개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박문국 방화사건은 정변의 와중에서 군중 형태의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군중들은 대개 갑신정변의 주체와는 반대 세력인 보수파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에 의해 정변의 주체들과도 관련이 있으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성순보》의 사옥 박문국에 방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에 대해서 전개되었던 신문 돕기 운동도 전국 각지의 뜻있는 독자들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 후원회를 결성하려 하는 등 조직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운동의 참여 주체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화기 언론 수용자운동 사례에서 나타난 운동의 방법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박문국 방화사건에서는 수용자들이 신문사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행위로 나타났다. 반면 개화기의 후반기에 오면 수용자들이 적은 액수의 돈이나마 모아서 신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 신문을 계속 발간할 수 있게 하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화기의 신문이 《한성순보》에서 시작하여 여러 신문들이 창간, 발행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면서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달라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즉 초기인 《한성순보》 시절에는 신문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급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적 태도에 의해 극단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졌지만 후반기로 오면서 신문의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인식과 평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개화기의 언론에서도 수용자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수용자운동의 역사적 뿌리가 그만큼 깊고 오래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언론 수용자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古庄豊 (1918). 井上角五郎君略傳》 東京: 井上角五郎君功勞表彰會).
- 강명구 외 (1999).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 《공립신보》
- 김기태 (1989). 《한국 언론수용자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관한 연구: 시청료 거부운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 대학원 .
- 김기태 (1991). 신문독자운동사례연구. 《저널리즘》 봄, 230-251.
- 김기태 (1994). 한국의 언론수용자운동. 한국언론연구원 편, 《언론과 수용자》(132-244쪽). 서울: 언론연구원.
- 김기태 (1999). 미디어교육과 언론수용자운동. 강명구 외,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141-152쪽).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 김도태 (1972). 《서재필박사자서전》. 서울: 을유문화사.
- 김민환 (1988). 《개화기 민족지의 사회사상》. 서울: 나남.

- 김영호 (1984). 개항기 한일간의 사상적 대응형태. 역사학회 편. 《일본의 침략정책사 연구》(113-135쪽). 서울: 일조각.
- 손석춘 (1999). 언론인운동의 과제와 전망. 강명구 외,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53-64쪽).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 양승목 (1995).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의 성격 변화: '자유언론'의 딜레마. 유재천 외 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93-146쪽). 서울: 도서출판 소화.
- 이광린 (1986). 「황성신문」 연구. 《동방학지》, 제53집, 1-44.
- 이문열 (2001. 7. 9.).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 《동아일보》, 7.
- 이은주 (2001). 한국 사회 언론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언론문화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8집, 71-118.
- 임영호 (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운동의 성격 1985-1993. 유재천 외 편, 《한국사회변동과 언론》(227-264쪽). 서울: 도서출판 소화.
- 井上角五郎 (1934). 《福澤先生の朝鮮御經營と現代朝鮮の文化とに就いて》.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권, 1984). 서울: 아세아문화사.
- 井上角五郎 (1990). 《漢城西殘夢》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 《일본 평론》, 제1집, 287-335쪽. (원저 출판연도 1891).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 (1985). 《한국현대언론사론》. 서울: 전예원.
- 《제국신문》
- 채백 (1998). 개화기 신문의 간접적 구독방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부산대 언론정보연구소), 제4호, 229-256.
- 채백 (1990). 《한국근대신문 형성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대학원.
- 최민희 (1999). 언론감시를 위한 모니터네트워크 구축. 강명구 외,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153-162쪽).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한국언론연구원 편 (1994). 《언론과 수용자》. 서울: 언론연구원.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1985). 《갑신정변연구》. 서울: 평민사.
- 《황성신문》
- 「황성신문사규칙」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발행) 제3집 1995, 397-400.

황성신문사총회회록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발행) 제3  
집 1995, 401- 403.

黄玑 (1978). 《梅泉野錄》(이장희 역). 서울: 대양서적. (원저 출판연도  
1910).

Lee, A. J. (1976). *The Origins of the Popular Press in England 1855-1914*.  
London: Croom Helm.

Smith, A. (1990). 《세계신문의 역사》(최정호, 공용배 공역). 서울: 나남.  
(원저 출판연도 1979).

(최초 투고 2002. 3. 20, 최종원고 제출 2002. 4. 18)